

죽음과 죽음-부재의 영향력

장은주*

I. 서론

이 발표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두 작품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연극의 획기적 발전을 이룬 어낸 두 작가의 작품으로 이들 작품에는 똑같이 죽음이 등장한다. 비록 작품이 쓰여졌을 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민권운동과 여권운동이 탄력을 받으면서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로 재조명된 수잔 글래스펠(Susan Glaspell, 1882-1948)의 『사소한 것들』(*Trifles* 1916)이 첫 번째 작품이다. 그리고 글래스펠이 남편 조지 크램 쿡(George Cram Cook)과 더불어 창단한 극단인 프로빈스타운 플레이어즈(Provincetown Players)에 함께 몸담았던 유진 오닐(Eugene O'Neill, 1888-1953)의 『느릅나무 밑의 욕망』(*Desire Under the Elms* 1924)이 두 번째 작품이다.

이 두 작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죽음과 죽음이 각각 산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들 작품을 끌고 가는 힘이다. 『사소한 것들』의 무대에는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인 라이트 부부가 등장하지 않는다. 극의 초반 이웃 해일씨(Mr. Hale)의 진술 때 잠시 등장할 뿐이다. 사건의 실마리는 이웃인 해일 부인(Mrs. Hale)과 보안관의 아내인 피터즈 부인(Mrs. Peters)의 대화를 통해 풀려나간다. 작품에 등장하는 존 라이트(John Wright) 살인사건이라는 실제적 죽음, 그리고 부재함으로 그 존재감을 극도로 드러내는 라이트 부인, 즉 그녀의 젊은 날 이름으로 치환되면서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미니 포스터(Minnie Foster)의 내면적 죽음의 상관관계와 이 두 죽음이 무대에 등장해 있는 남녀들, 특히 이웃 여성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느릅나무 밑의 욕망』에는 총 다섯 명의 죽음이 등장한다. 먼저 주인공 중 한 명인 캐버트(Ephraim Cabot)의 첫 번째 아내이자 시미언(Simeon)과 피터(Peter)의 어머니, 그리고 캐버트의 두 번째 아내이자 또 다른 주인공 에벤(Eben)의 어머니 두 사람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어쩌면 캐버트에게 더이상 의미가 없는 존재인 죽은 아내들임에도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농장에 건재하는 느릅나무로 의인화되어 살아 숨 쉬고 있다. 그 이외의 죽음은 시미언의 아내 젠(Jenn)과 애비(Abbie)와 전남편 사이에 태어났던 아기, 그리고 애비와 에벤 사이에 태어났던 아기이다. 이 다섯 명의 죽음은 모두 작품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 발표문에서는 에벤 엄마의 죽음과 친모에 의한 ‘영아살해’라는 충격적 소재가 되는 다섯 번째의 죽음인 아기의 죽음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에벤 엄마의 죽음은 주인공 에벤에게 분노와 욕망이 뒤섞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장을 덮은 느릅나무로 환생한 듯한 묘사를 통해 캐버트와 애비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발표문에서는 이러한 존 라이트 부부와 에벤 엄마의 죽음 혹은 죽음, 그리고 애비에 의한 영아 살해를 통해 이 주인공들이 품고 있는 욕망과 죽음의 상관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두 작품에서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사상으로 창작에 몰두했던 수잔 글래스펠과 유진 오닐 작품 사이의 독특한 연결고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느릅나무 밑의 욕망』에 전개되는 서사는 마치 『사소한 것들』에서 존 라이트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미니 포스터가 아들을 남기고 죽었다면 (혹은 죽임을 당했다면) 발생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인 속편과도 같이 읽혀졌다. 즉, 『사소한 것들』에서 존 라이트의 죽음 혹은 죽음 이전에 미니

* 창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포스터는 남편에 의해 서서히 살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느릅나무 밑의 욕망』에서 에번 엄마의 죽음으로 오버랩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죽이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두 작품은 프리퀄(prequel)과 시퀄(sequel)의 형태로 존재해 보인 것이다. 가난한 농촌을 배경으로 역세계 운명을 개척하는 남편이긴 하나 그러한 강한 삶의 의지는 “딱딱함(hard)”(오닐 127)으로 혹은 “인색함(close)”(글래스펠 109)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딱딱함이나 인색함은 서서히 미니 포스터 혹은 에번의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이 죽음들은 모두 등장인물들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부재한 등장인물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따라가 보면 등장인물들의 죽음과 죽음 사이의 상관관계와 그에 따른 욕망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II. 『사소한 것들』의 죽음과 죽음 - 부재에서 존재로

작품 『사소한 것들』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보편화 되기 이전에 작가가 고향인 아이오와주에서 1901년에 발생한 농부 존 호썹(John Hossak) 살인사건을 기자의 신분으로 취재한 것이 극의 모티브가 되었다. 미니 포스터는 라이트 부인의 처녀 시절 이름이다. 극 중에서 살인사건의 증거를 찾기 위해 수사 중인 남성들에게서는 미니 포스터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며, 그녀를 기억하는 헤일 부인에 의해 회상된다. 그녀의 처녀 시절 이름을 기억해 낸다는 것은 그녀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정체성을 밝혀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즉, 헤일 부인은 ‘미니 포스터’라는 라이트 부인의 옛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며 더불어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극에서 미니 포스터는 “예쁜 옷을 즐겨 입었고 생기가 있었던”(109) 혹은 “새 같았다고나 할까요”(125) 등에서 보듯 생명력이 넘치던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미니 포스터가 라이트 부인으로 바뀌는 과정, 즉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 한 여성이 30년의 세월 동안 어떤 여성으로 바뀌게 되는지도 다음과 같은 헤일 부인의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라이트는 돈에 인색했어요. 아마 그래서 미니 포스터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때가 많았던가 봐요.”(108) 돈에 인색했던 남편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라이트 부인이 외떨어진 농가에서 홀로 감내해야 했던 외로움은 충분히 추측 가능하다. 작품의 초반 처음으로 존 라이트가 살해된 것을 발견해낸 이웃 헤일 씨의 서술에서도 존 라이트의 성향은 쉽게 드러난다. 공동 전화선(party telephone)의 설치도 거절하는 등 존 라이트는 이웃 간의 소통에 관심이 없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헤일 부인의 묘사에서도 이러한 그의 성격은 추가로 드러난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집에 오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았지요.”(123) 이 대화와 같이 존 라이트라는 인물은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헤일 부인이 그 차가운 기운에 “부르르 떨(shivers)”(125) 정도이다.

라이트 씨는 아내에게서 그 생명력을 빼앗아갔다. 미니 포스터는 더 이상 노래하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카나리아를 보며 외로움을 달래고자 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카나리아의 목을 비튼 행위에 대해 라이트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라이트 부인은 자신의 정신적 생명력을 앗아간 남편의 목을 밧줄로 조른다. 정신적 죽임을 당한 여성이 그 죽임을 행한 남성을 실제로 죽인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들이 계속해서 ‘사소한 것들’로 치부해 버리는 ‘중요한’ 단서들은 그들이 존 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에게,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생명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이들이 무시하는 ‘사소한 것들’이 실제로는 한 여성이 원래 지니고 있던 정체성

을 짓밟고 생명력을 빼앗아 갔으며,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한 남성의 육체적 생명을 실제로 앗아간 계기가 되었음을 이웃의 두 여성을 빼고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의 죽음과 죽임이 남겨진 이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자. 두 여성 헤일 부인과 피터즈 부인은 대화를 통해 보안관이나 군 검사가 밝혀내지 못하는 살인사건의 정황적 증거를 발견해 나간다. 위에서도 언급했듯 라이트 부부의 성격과 성향은 헤일 부인의 기억에 의해 소환된다. 이 기억은 무대에 등장하지 않는 부재하는 두 인물에게 강력한 존재감을 부여한다. 글래스펠은 의도적으로 살인 용의자인 주인공 미니를 무대에서 부재시킨다. 노애경의 주장처럼 “부재는 명백하게 존재가 입증된 것들만 증거로 인정하는 기존의 법 절차에 대한 거부 의 몸짓”이기 때문이다 (569). 이렇게 부재한 존재로 설정됨으로써 더욱 강력하게 헤일 부인과 피터즈 부인에게 불려 나온 미니 포스터 혹은 라이트 부인의 존재감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소멸해간 여성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헤일 부인은 미니 포스터가 정신적으로 죽어가던 상황에서 그녀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한 자신을 반성한다. 결국 그녀는 “이따금 이곳을 들여다 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그건 죄입니다. 그 죄를 누가 벌할 건가요?”(133) 라며 남성 중심 사회가 만들어낸 법과 제도의 태두리에서 비켜 서 있는 여성의 피해에 대해 옹호하고, 자신도 그 제도 안에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호소한다. 이는 새로운 시각으로 범죄 혹은 법과 제도를 보아야 한다는 제안이자 여성연대에 대한 제안인 것이다. 또 피터즈 부인은 라이트 부인과 자신이 비슷한 경험을 가졌음을 발견해내고 처음의 보안관의 아내로서의 냉정한 자세에서 점점 라이트 부인을 두둔하는 쪽으로 태도가 바뀌어 간다. 어린 시절 자신의 고양이를 손도끼로 죽인 소년에 대해 느꼈던 자신의 ‘살기(殺氣)’로 라이트 부인의 남편에 대한 ‘살기’를 이해하게 되고, 아이를 잃었던 경험을 통해 라이트 부인이 느꼈을 ‘적막감’에 대해 공감한다. 이러한 공감은 헤일 부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연대를 맺는 기폭제가 되어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상자를 ‘숨기는’ 적극적 ‘범죄은닉’에 동참하게 된다. 결국 그동안 이 세상에서 소외됨으로써 부재해 왔던 미니 포스터로서의 생명이 헤일 부인과 피터즈 부인의 연대를 통해 되살아 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즉 라이트 부부의 죽음과 죽임을 통해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부재했던 것들을 존재하도록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느릅나무 밑의 욕망』의 죽음과 죽임 - 욕망에서 사랑으로

『느릅나무 밑의 욕망』의 서사는 그리스비극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근친상간이라는 커다란 모티브는 소포클레스(Sophocles)의 『오이디푸스』(*Oedipus*)와 에우리피데스(Euripidēs)의 『히폴리투스』(*Hippolytos*)에서 가져왔다. 또 근친상간에 의해 출생하는 애비와 애비의 아기가 애비에 의해 살해되는 영아 살해의 서사는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Medeia*)에서 그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다. 애비의 등장 초기에 시미언과 애비에 의해 “악마(devil)”(58) 혹은 “마녀(witch)”(92)로 지칭되는 것은 이후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메데이아와 동일한 행위를 할 복선으로 보인다. 작품은 근친상간이나 영아살해와 같은 다소 선정적인 소재를 차용하였지만 그것은 극의 주제를 극대화하여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일뿐, 실은 인간의 욕망이나 비극이 고대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죽은 애비의 엄마는 이 집을 둘러싼 느릅나무로 표상되고 있다. 작품의 서두 첫 무대 지시문은 이 느릅나무에 대한 긴 묘사로 시작된다. “집 양쪽에는 두 그루의 커다란 느릅나무가 있

어 지붕 위로 가지를 축 늘어뜨리고 있다. 어딘가 이 집을 보호하는 것 같기도 보이고, 억압하는 것 같기도 보인다.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지독한 모성애를 연상시킨다.”(10) 위 지문이 암시하듯 시미언과 피터의 어머니 에번 어머니의 영혼이 이 집을 ‘억누르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 두 문장에 등장하는 “exhausted women”이나 “their tears” 등의 표현들을 통해서도 캐버트의 이전 아내들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며 어떤 ‘원한’ 같은 것이 서려 있어 이 집의 현재나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것임을 예고한다.

작품에서 에번은 어머니의 죽음이 철저히 아버지의 죽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들이 에번의 어머니가 자신들과 아버지에게 잘했다고 기억해 내자 “죽도록 부려먹었잖아.”(31)라고 대답하는데,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에번의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이건 엄마 농장이었어. 아버지가 엄마한테서 훔쳤지.”(33) 라는 대사를 통해서 아버지를 어머니의 것을 ‘훔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빼앗긴 것’을 ‘되찾는’ 복수의 대행자를 자처함을 보여준다. 그런데 에번의 어머니는 끝내 작품에서 이름을 얻지 못한다. 이름이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언어적 기호이다. 에번에게서 죽은 에번의 어머니는 그 이름 대신 못다 채운 애정의 욕구로 인해 비뚤어진 농장에 대한 소유욕,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욕으로 현현한다. 이렇게 그녀의 죽음은 캐버트의 죽음에 의한 것으로, 고생만 하다 떠난 어머니는 에번에게 긍정적인 사랑의 모성이 되지 못한다. 어머니의 영혼이 실제로 느릅나무로 상징되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결과가 어머니가 원하는 바였을지는 알 수 없다. 즉 에번이 자신의 소유욕에 죽은 어머니의 ‘복수’라는 감정을 끌고 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에번 어머니의 죽음은 그녀의 남편 캐버트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그는 견디기 힘든 노동을 계속하도록 아내를 몰아갔고 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자신이 늘 쌓아가던 돌담처럼 “딱딱한(hard)” 사람이던 캐버트는 자신의 욕망의 대상인 농장에 있으면서 단 한 군데 외양간을 제외하고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는 느릅나무로 표상되는 죽은 아내들의 영혼에 의해 감시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더 나아가 그러한 감시의 기운은 단순히 지켜보는 것을 넘어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는 아내들과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늘 “외로운(lonesome)” 사람이었다. 캐버트가 아내들과 있으면서도 늘 외로움을 느낀 것에 대해 이름을 얻지 못한 죽은 아내들에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사소한 것들』에서 노래를 좋아하고 활기가 넘치던 미니 포스터가 ‘딱딱하고 냉정한’ 남편 때문에 그 생기를 잃어가고 외로움에 시달렸을 것임은 남겨진 두 여성의 대화에서 충분히 드러난다. 캐버트는 아내들 속에서도 늘 외로움을 느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게는 그나마 그것이 모성 원형이든 무엇으로 규정되건 안식처가 될 외양간이 있었다. 죽은 아내들에게는 어떠한 안식처가 있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죽음 이후에 농장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어두운 기운은 그녀들의 ‘원한’이거나 캐버트 자신의 내면에 생겨난 ‘죄의식’의 투영이다.

등장인물들의 삶에 극단적인 영향을 끼치는 또 하나의 죽음은 애비에 의한 영아살해이다. 에번이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던지는 ‘과거 애비의 대사’를 그대로 믿은 채 애비와 아기를 증오하는 대사를 내뱉음으로써 애비로 하여금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도록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영아살해라는 극 중 하나의 사건은 욕망과 결합한 복수심이 어떤 파국의 결말을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이다. 에번은 자신의 욕정과 더불어 ‘아버지의 것’을 차지하여 어머니의 복수를 실행한다는 마음으로 애비와 잠자리를 갖는다. 그런데 현재 자신을 사랑하는 애비의 진심을 보지 못한 채 아버지 캐버트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로 그녀를 대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기를 ‘없어져야 할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애비에게 살해

를 부추긴다. 그러나 유진 오닐은 역설적으로 영아살해라는 극단적 수단을 통해 애비와 에번에게 ‘진실한 사랑’에 대해 깨우치는 계기를 부여하고 있다.

캐버트가 죽은 아내들에게서 받는 영향과 에번이 사실은 자신이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아기의 죽음에서 받는 영향은 작품 전체가 제시하는 ‘욕망’이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한다. 끊임 없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했던 캐버트는 아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아내들의 부재는 그에게 극도의 외로움을 가져왔다. 아내의 죽음과 남겨진 그녀가 남긴 아들 에번의 모습에서 그가 얻지 못한 “soft”를 보면서 끝내 자신의 욕망에 대해 들여다 보지 못한 캐버트는 작품의 막바지에서도 농장에 대한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에번의 경우 자신의 아들을 스스로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인정하고 애비와 더불어 별을 받기 위해 떠나는 결단을 내린다. 에번에게 죽은 어머니의 부재는 복수와 소유욕을 불태우는 영향을 끼쳤고, 그 욕망이 극대화 되어 자신의 아기를 살해하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기의 죽음(부재)은 다시 에번에게 자신이 추구하던 비뚤어진 욕망의 정체를 알게 하는 영향을 끼친 것이다.

IV. 결론

『사소한 것들』에서 존 라이트는 미니 포스터의 활기를 빼앗음으로써 그녀를 정신적 죽음에 이르게 했고, 이 행위는 거꾸로 그의 육체에 대한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아무에게도 외로움을 말할 수 없었던 그녀는 ‘살인’이라는 용납되기 어려운 범죄를 통해 자신을 놓아버린다. 그러나 알아보고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그녀의 이웃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의 한 사람인 우리는 그녀의 죽음과 죽임을 통해 그녀의 존재감을 깨우치며 내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느릅나무 밑의 욕망』에 등장하는 죽음 혹은 죽임에는 주인공들의 욕망이 뒤엉켜있다. 그러나 끝을 알 수 없는 욕망에 시달리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삶을 이어가도 돌아오는 것은 쓸쓸함이나 허전함뿐이다. 무엇을 위해서 농장을 가꾸고 소유하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은 배제된 채 궁극의 추구만 존재한다. 그러한 궁극의 욕망 추구는 어머니의 죽음 혹은 죽임에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대물림 된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들』 속 미니 포스터가 남편을 차마 살해하지 못하고, 그 척박한 농가에서 정신적 생명력을 잃어가다 병약해져 육체적 생명마저 빼앗겼더라면, 이는 곧바로 『느릅나무 밑의 욕망』에서 에번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돌발으로 대변되는 척박한 농촌의 환경 속에서 역세고 딱딱한, 인색한 남편을 둔 이름 없는 캐버트의 두 전처는 서서히 목숨이 빼앗겼을 것이다.

『사소한 것들』의 라이트 부인은 자신의 정신적 생명이 어떻게 빼앗기고 있었는지 남성적 사회가 만든 법과 제도의 범위에서 설명하면서 법정투쟁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대에서 부재했던 그녀의 영향력은 그녀의 정신적 죽음과 남편에 대한 육체적 죽임이라는 사건으로 구체화되었고, 그녀에게 공감하고 연대하는 두 여성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한편 『느릅나무 밑의 욕망』에서 캐버트는 죽은 아내들의 부재가 몰고 온 불길한 기운과 외로움을 욕망으로 점철된 삶을 바꾸는 계기로 만들지 못했다. 이와는 달리 어머니의 죽음과 그 부재로 인해 불타올랐던 극단의 욕망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음을 깨달은 에번은 그 죄값을 치르고 애비와의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작품의 무대에서 부재하는 인물들인 미니 포스터와 에번의 어머니, 그리고 에번의 아기는 인간이 욕망을 넘어서지 못할 것은 없다는 희망의 영향력으로 살아있다.